

CCRT 방법을 이용한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타당화

박 수 진[†]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핵심 갈등관계 주제(CCRT) 방법을 사용하여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 Questionnaire)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임상가의 평정을 필요로 하는 CCRT 방법과는 달리,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는 자기보고 방식으로 대인관계 패턴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 65명에게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다양한 범주의 대인관계 패턴을 보이는 15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축어록을 CCR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CCRT 평정 결과를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결과와 비교하여 이들 간의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CCRT 방법에서 높게 평정된 소망, 타인반응, 자기반응들이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CCRT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가 나온 핵심 구성요소들의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평균 점수를 나머지 구성요소들의 평균 점수들과 각각 대응 표본 t 검증한 결과, 소망과 자기반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타인반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타인반응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다면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는 핵심 갈등관계 주제의 내용을 반영하는 자기보고식 평정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대인관계 패턴, 핵심 갈등관계 주제(CCRT) 방법,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타당도

* 본 연구는 2006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박수진, 서울특별시립 보라매 청소년수련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

E-mail : daae12@nate.com, Tel : 02-834-1355

대인관계 패턴은 타인과 관계 맺는 특징적인 방식으로, 생애 초기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서 시작되어 다른 관계에까지 이어진다. 정신역동 치료이론에 따르면, 핵심 관계 패턴은 충족할 수 없는 소망들 사이의 갈등 또는 소망과 금기 사이의 갈등에서 얻어진 타협 형성물이다(Barber, Foltz & Weinryb, 1998; Brenner, 1982).

역동적 심리치료에서는 상담자를 포함한 여러 대인관계에 걸쳐 드러나는 내담자의 패턴을, 통찰을 얻고 치료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활용하고자 노력한다(Barber et al., 1998; Davanloo, 1980; Luborsky, 1984; Malan, 1976a, 1976b; Strupp & Binder, 1984). 정신 분석 이론에서는 내담자의 관계 맺는 방식을 전통적으로 ‘전이’ 개념으로 설명하였다(Davanloo, 1980; Freud, 1905, 1912). 정신 분석 이론의 전이 개념에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적 시각을 첨가시킨 사회인지 이론에서는 내담자가 개인 특유의 대인관계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의 신념체계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를 인물 원형(person prototype), 도식(schema) 등의 용어로 개념화 하였다(Horowitz, 1991; Singer & Salovey, 1991). 또한 대인관계 이론에서는 내담자가 가진 대인관계 패턴은 상담실 내에서 상담자에게도 반복되며, 이러한 대인관계 패턴은 단지 추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명백한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함으로써 서술되어야 한다고 본다(Haley, 1963; Strong & Claiborn, 1982).

이렇게 핵심 대인관계 패턴이 여러 이론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핵심적 대인관계 패턴을 측정하는 적절한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핵심

대인관계 패턴의 측정은 주로 전문적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치료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실제 대인 상호작용을 평가하여 추론하였다(Luborsky, 1998; Luborsky, Crits-Christoph & Mellon, 1986). 그중에서도 Luborsky와 Crits-Christoph(Luborsky, 1976, 1977; Luborsky & Crits-Christoph, 1990, 1998)의 핵심 갈등관계 주제(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CCRT) 방법은 많은 연구를 통해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임상 경험에 입각한 대인관계 패턴 측정방법은 그 유용성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구하며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므로 객관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Barber 등(1998)이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핵심 관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관계 질문지(The Central Relationship Questionnaire: CRQ, Barber et al., 1998)를 개발하였고, 한국에서는 이 질문지와 CCRT 표준범주를 토대로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윤지희, 2003)가 개발 되었다.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는 대인관계 패턴의 내용을 자기 보고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를 CCRT 방법과 비교하여 각각의 도구가 유사한 내용의 핵심 갈등관계 주제를 보여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보고 방법을 이용한 측정도구가 핵심 대인관계 패턴의 내용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신분석 이론은 핵심관계 패턴을 ‘전이 형판(transference template)’, ‘잔여 외상(residual trauma)’ 또는 ‘핵심 갈등(nuclear conflict)’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치료자와의 강도 높은 관계 체험인 전이는 과거관계의 재현이며, 치료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양상

과 유사하다는 것이다(Luborsky, Barber, and Crits-Christoph, 1990).

전이에 대한 Freud의 견해는 정신분석학의 발전으로 그 의미가 확장 되어 대인관계적 심리치료 학파에 속하는 Sullivan(1953, 1954)과 Horney(1950) 등에 의해 재정립 되었다. 이들은 전이 현상을 과거의 반복이라고 협소하게 정의 내리는데 회의를 가지고, 고전적인 전이 대신 상호 주관적인 실제 대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Sullivan과 Horney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내담자가 보이는 경직되고 반복되는 패턴을 중요하게 보고, 혼란스럽고 부적절한 대인관계 방식에서 심리장애의 원인을 찾았다(Kiesler, 1982). 이러한 상호작용에서의 경직성을 Sullivan은 병렬적 왜곡이라고 하였으며, 전이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Walrond-Skinner, 1986). 한편 Anchin과 Kiesler(1982)는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특정한 행동적 교환과정이 일어난다고 보았고, 이를 대인관계적 연계라고 하였다. 대인관계적 연계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게 조직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대인관계 패턴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학습되어 현재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생산된다.

현대 심리치료 이론가들에게 전이 개념은 여전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Luborsky 등(1976, 1977, 1990, 1998)의 CCRT 방법과 Strupp 등(1984)의 순환적 부적응적 패턴(Cyclical Maladaptive Pattern: CMP)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내담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부적응적인 관계 패턴이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여러 증상들의 원인이 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의 치료법은 치료자를 포함한 내담자의 주요 대상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패턴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윤지희, 2003). 내담자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상담자와 의사소통하며,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제한적이고 극단적인 메시지를 상담자에게 보내게 되므로 그 결과 상담자는 내담자의 대인관계적 문제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

대인관계 패턴의 측정 도구들은 상담에서 역동적 사례개념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초점이 되며 상담 성과와 변화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다(윤지희, 2003). 임상적 평정을 통하여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을 내용적으로 분석하는 도구 중 가장 먼저 개발된 도구가 Luborsky 등(1976, 1977, 1990, 1998)의 CCRT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한 사람이 하나의 핵심 갈등관계 주제를 가지며, 단일 주제의 관계 패턴이 여러 대상에게 반복된다고 전제한다. 핵심 갈등관계 주제는 Freud의 전이 개념과 유사하지만, 현재가 중심이 되는 관계 패턴으로부터 갈등관계를 추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내담자의 소망(Wish, need, intention: W), 타인반응(Response from others: RO) 그리고 자기반응(Response of self: RS)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관계 패턴의 내용적인 측면을 추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내담자의 소망은 내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소망·요구·의도를 말하고, 타인반응은 관계일화(relationship episode: RE)에서 대상이 된 상대방이 내담자에게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를 말한다. 자기반응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내담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평정자들은 상담 축어록이나 인터뷰

를 통해서 내담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드러나는 관계일화를 뽑아내고 거기에서 내담자의 소망, 타인반응, 자기반응을 추론하여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을 요약한다.

CCRT 방법을 시작으로 상담 자료를 기초로 한 다양한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었다. 그중 Weiss 등(1977)이 개발한 계획 공식화 방법(Plan Formulation: PF), Benjamin(1979)의 사회 행동 구조 분석(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SASB), Horowitz(1979)의 공식화 분석(Configurational Analysis) 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 밖에도 개별적 갈등 공식화 방법(Idiographic Conflict Formulation: Perry & Cooper, 1989), 순환적 부적응 패턴(Cyclical Maladaptive Pattern: Strupp & Binder, 1984), 구조 분석(Frame Analysis: Teller & Dahl, 1981) 등은 그 효용성을 인정받은 관계 패턴 측정 도구들이다.(Luborsky, 1998; Barber & Crits-Christoph, 1993)

자기보고 방식으로 관계 패턴을 측정하려는 연구 역시 진행되었는데 Luborsky(1998)에 따르면, Chance(1952)는 내담자의 주요 타인에 대한 기술과 치료자에 대한 기술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개발하였고, Fiedler(1952)는 이상적 대상에 대한 내담자의 기술과 치료자의 자기 묘사에 대한 내담자의 예측을 비교하여 전이를 정의 내렸다. 또한 Apfelbaum(1958)은 앞으로 상담 받게 될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묻는 Q-sort 질문지를 가지고 전이를 측정하려 하였으며, Apfelbaum의 Q-sort 질문지를 토대로 Rawn(1958, 1981)과 Crisp (1964a, 1964b, 1966)의 연구가 이어졌다. Subotnick (1966a, 1966b) 역시 Q-sort 질문지를 통해 부모와 상담자에 대한 태도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임상가가 측정할 전이 패턴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타당도에서 한계를 가졌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CCRT 표준범주를 토대로 핵심 관계 질문지(The Central Relationship Questionnaire: CRQ, Barber et al., 1998)와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 Questionnaire: IRPQ, 윤지희, 2003)가 개발되었다. Barber 등(1998)이 제작한 핵심 관계 질문지(CRQ)는 연애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가 가장 안 좋았을 때의 상황에서 응답자가 느끼는 소망, 타인반응, 자기반응을 7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IRPQ)는 CCRT 방법의 표준범주 2판의 내용을 기초로 문항을 구성하고 핵심 관계 질문지를 번안하여 문항을 보완·개발한 것으로, 핵심 갈등관계 주제의 정의를 이용하여 대인관계 패턴을 소망(Wish), 타인반응(RO), 자기반응(RS)의 세 측면으로 정의하고 측정한다.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인관계 패턴의 내용적인 측면을 자기보고형 도구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와 CCRT를 비교하여 두 척도 간에 공유하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CCRT를 대신하여 이 질문지로 간편하게 대인관계 패턴을 측정하고 이를 상담실제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rits-Christoph와 Luborsky(1998)는 CCRT 표준범주 1판을 토대로 만든 자기보고식 CCRT 질문지와 관계 일화 패턴 면접(Relationship Anecdotes Paradigm Interview: RAP, Luborsky, 1990)자료를 CCRT 방법으로 평정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임상가가 평정한 첫 번째 그

리고 두 번째로 주요한 소망을 선정하고, 그것을 자기보고 질문지에서 사용된 CCRT 구성요소로 바꾼 후, 자기보고 질문지에서 같은 소망을 내담자가 어떻게 평정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담자들은 자기보고 질문지에서 평정자가 선정한 주요 소망들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이에 연구자들은 임상가가 평정한 주요 소망들에 높은 점수를 주더라도 다른 소망들에 같이 높은 점수를 줄 경우 둘 간에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상가가 평정한 주요 소망의 평균점수와 임상가가 평정하지 않은 소망들의 평균 점수의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내담자들이 다른 소망들에 비해서 임상가가 평정한 주요 소망에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CCRT 방법으로 얻어진 대인관계 패턴의 내용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서도 측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이 결과는 집단 평균 비교 뿐 아니라 개인 평균을 각각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위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자기보고식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를 CCRT 평정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이 질문지의 효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동일한 내담자에게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와 핵심 갈등관계 주제 방법으로 평정된 핵심 대인관계 패턴의 내용을 얻어 상호비교하고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임상가가 평정한 주요 대인관계 구성요소가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에서 평가되는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내용적 유사성뿐 아니라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CCRT 방법으로 평정된 핵심 구성요소가 질문지 상에서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지 살펴보았다.

방 법

도구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윤지희(2003)가 CCRT 표준범주 2판과 CRQ의 문항을 고려하여 제작한 질문지로 핵심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대인관계에서의 소망과 타인반응 그리고 자기반응으로 평가한다. 소망 51문항, 타인반응 53문항, 자기반응 58문항으로 구성된 총 16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친구(이성친구, 연인, 배우자,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안 좋았을 때를 중심으로 7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하위범주는 소망이 7요인, 타인반응이 8요인, 자기반응이 6요인으로, 전체 내적합치도(α)는 소망 .92, 타인반응 .89 그리고 자기반응 .90 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부모, 형제 포함)으로 관계의 대상을 넓혀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범주별 문항 평균이 가장 높은 범주를 핵심 소망, 핵심 타인반응, 핵심 자기반응으로 간주하였다.

연구 절차

현재 상담중인 내담자 65명에게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를 실시하여 소망, 타인반응, 자기반응의 분포를 살펴보고 그 중 다양한 범주의 소망, 타인반응, 자기반응을 보이는 내담자 19명의 상담 축어록을 CCRT 방법으로 분석하여, 분석결과가 분명하지 않은 4사례를 제외하고,

15사례의 결과를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와 비교하였다. CCRT 결과는 비교를 위해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구성요소로 바꾸고 사례별로 그 내용을 비교하였다. 먼저 핵심 구성요소들을 비교하여 평정자가 분석한 핵심 구성요소를 내담자도 가장 주요한 구성요소로 선택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내담자의 자기인식 정도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 그리고 질문지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CCRT 구성요소를 상위 3개씩 선정하여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두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평정자가 평정한 핵심 구성요소가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핵심 구성요소의 점수와 다른 구성요소들의 점수를 대응표본 t 검증 하였다.

분석 방법

Luborsky 등의 핵심 갈등관계 주제 (CCRT) 방법으로 내담자의 상담 축어록에서 다른 사람과의 분명한 상호작용이 드러나는 관계일화를 선정하고, 관계일화 안에서 CCRT 구성요소인 소망, 타인반응, 자기반응을 평정하여 내담자의 반복되는 핵심 대인관계 패턴을 파악하였다.

관계일화의 분류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졸업생 1명과 석사과정생 2명이 CCRT 평정 방법과 절차를 숙지한 후 CCRT 평정을 시작하였다. 먼저 개별 작업으로 관계일화를 발췌하였는데, 평정자들은 축어록을 읽으며 매 회기마다 관계 상호작용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이나 이야기를 선정하여 관계일화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고 관계일화의 번호와 주요 관계대상을 표시하였다.

관계일화의 영역이 지정되면, 핵심 관계 패턴의 구성요소인 소망, 타인반응, 자기반응을 추론할 수 있는 사고 단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관계일화의 완결성 점수를 1점에서 5점까지 주어 일화의 완결성 정도를 평정하였다. 소망, 타인반응, 자기반응이 분명히 드러나는 관계일화는 2.5점 이상을 주는데 관계일화가 얼마나 상세히 기술되느냐에 따라 3.0에서 5.0 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며, 이 과정에서 완결성 점수가 2.5점 이하인 관계일화는 제외되었다. 여러 번의 개별 작업을 거친 후 3명의 평정자가 함께 모여 관계일화의 영역과 완결성 점수를 합의하였다. 평정자들은 각각 자신의 평정결과와 근거를 밝히고 최종합의에 도출하기 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자료를 제외한 관계일화의 내용만을 CCRT 평정에 포함시켰다.

CCRT 구성요소(소망, 타인반응, 자기반응)의 평정

관계일화를 분류했던 평정자가 CCRT 구성요소의 평정에도 참가하였는데 이는 사례의 이해를 도와 CCRT의 구성요소 평정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평정자들은 먼저 개별 작업을 통해 CCRT 구성요소를 추론할 수 있는 사고 단위에 밑줄을 긋고, 사고 단위가 소망, 타인반응, 그리고 자기반응 중 어느 것인지를 분류하였다. 분류된 구성요소 각각은 사고 단위의 내용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는데, 사고 단위의 내용을 직접 가져와 이름 붙이거나 평정자가 유추하여 이름을 붙였다. CCRT 구성요소를 추론하는 과정은 개별 작업을 통하여 여러 번 반복되며 평정자 간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평정자간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자신의 평정근거를 함께 논의하였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합의를 통해 이룸 붙여진 구성요소들은 또 한번의 표준 범주 목록과의 비교를 통해 합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CCRT 구성요소로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요소 평정 방법은 평정자 개인이 구성요소에 이룸 붙이는 방식인 맞춤(tailor-made) 방법에 표준 범주 유목과 비교하는 방식을 더하여 내담자의 개별적인 특징을 살리면서도 집단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정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자료만 사용하였으므로 평정자간 일치도를 따로 구하지는 않았다.

결 과

동일한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결과와 CCRT 평정 결과를 사례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CCRT 방법으로 평정된 결과는 부록의 기준에 따라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하위범주로 전환하였다. 윤지희(2003)는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문항제작 시 CCRT 표준범주 2판의 세부내용을 예비문항으로 사용하여 요인분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CRT 표준범주 2판의 세부내용은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안에서 CCRT 표준범주 2판의 범주와는 다른 하위범주로 묶이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CCRT 표준범주 2판의 세부내용으로 만들어진 질문지의 문항이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에서 어느 하위범주로 묶였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CCRT 표준범주 2판의 내용을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하위범주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였다(부록 1).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하위범주 기준으로 전환된 CCRT 평정 결과 중 전체 관계일화에

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구성요소를 선정해 같은 내담자가 보고한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구성요소와 비교하였다(표 1).

비교 결과 평정자가 판단한 핵심 구성요소가 내담자가 보고한 핵심 구성요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전체 15사례 45개 구성요소 중 18개(40%: 소망 9개, 타인반응 3개, 자기반응 6개)였으나, 상위 3개의 구성요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비교한 경우에는 2개를 제외한 43개(96%) 구성요소들이 서로 일치하였다. 순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CCRT 방법에서 높게 평정된 소망, 타인반응, 자기반응들이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상에서도 높게 평정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CRT 방법에서 평정된 핵심 구성요소가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상위 3개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경우는 전체 45개 구성요소 중 36개(80%: 소망 12개, 타인반응 10개, 자기반응 14개)였는데 이 결과 역시 평정자가 평정한 핵심 대인관계 패턴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서도 드러남을 알려주었다.

더불어 전체사례에서 평정자가 평정한 핵심 구성요소가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핵심 구성요소의 평균과 나머지 구성요소들의 평균을 대응표본 t검증 하였다. 이는 내담자가 질문지를 실시할 때 핵심 구성요소 뿐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에도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것을 고려하여 다른 구성요소들의 평균과 핵심 구성요소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려는 과정이었다. 먼저 핵심 구성요소의 문항 평균들을 모두 더하여 전체 사례수 15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고 나머지 구성요소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평균을 구하여 전체

표 1. 사례별 상위 3개 구성요소 일치 내용

사례번호	소망	타인반응	자기반응
사례1	1-1, 2-2	2-1	1-1, 2-3
사례2	1-3, 3-1	2-2, 3-1	1-1, 1'-2
사례3	1-1, 1'-3, 3-1'	1-3	1-2, 3-2'
사례4	2-2, 3-1	1-2, 2-3	1-1, 2-2
사례5	1-3, 2-1	1-1	1-2, 2-1
사례6	1-1, 2-2, 3-2'	-	1-3
사례7	1-1	1-1, 3-3	1-2, 3-1
사례8	1-1, 2-2	3-2	1-1, 2-3
사례9	1-3, 3-2	1-2, 3-3	1-2
사례10	1-1, 3-2	1-2, 2-1	1-3, 3-2
사례11	1-1, 2-1'	1-3, 2-2	1-2, 3-1
사례12	1-1	1-1	1-1, 2-3
사례13	2-1	-	1-1, 1'-2, 3-3
사례14	2-2	1-2	2-2
사례15	1-1, 3-3	1-3, 3-1	1-2
핵심 요소 일치빈도	9개	3개	6개

주. 1~3까지의 숫자는 CCRT 결과와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결과의 상위 3개의 구성요소의 순위를 말함. 앞의 숫자는 CCRT 결과 순위, 뒤의 숫자는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결과 순위를 말함. 예로, 사례 9의 타인반응에서 CCRT 결과 두 번째로 빈도수가 높았던 하위범주가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결과에서는 첫 번째로 평균이 높은 하위범주로 나타남을 표현.

사례의 핵심 구성요소 평균과 나머지 구성요소들의 평균을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핵심 소망과 핵심 자기반응은 나머지 소망 및 나머지 자기반응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핵심 타인반응은 유의하지는 않으나 나머지 타인반응들에 비해 높은 평균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즉, CCRT 결과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소망과 자기반응은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상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Crits-Christoph와 Luborsky(1998)의 연구처럼 집단평균의 비교가 개인차를 가릴 것을 고려하여 사례마다 각각 평균을 비교한 결과, 13 사례의 핵심 소망은 다른 소망들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고 2사례에서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각 11사례의 핵심 타인반응, 핵심 자기반응에서도 다른 반응들보다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으며 각각 4사례에서만 낮은 평균을

표 2. 전체사례의 핵심 구성요소 평균과 나머지 구성요소들의 평균 *t* 검증

	핵심 구성요소의 평균	나머지 구성요소들의 평균	유의미도
소망	5.67	4.43	.000***
타인반응	3.67	3.16	.179
자기반응	4.23	3.64	.022*

p* < .05, *p* < .01, ****p* < .001(2-tailed)

보여주었다. 개별사례에서 핵심 구성요소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은 경우는 중요한 소망, 타인반응, 자기반응에 대한 내담자의 자기인식 부족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전체 집단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타인반응은 사례별 비교에서는 자기반응과 같은 차이를 보여 핵심 타인반응이 다른 타인반응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해주었다. 요약하자면 내담자들은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통해 평정자의 평정과 유사한 대인관계 패턴을 의식적으로 보고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에게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내담자의 상담 축어록을 CCRT 방법으로 분석하여 내담자의 핵심 갈등관계 주제를 비교하고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는 임상가의 평정을 통해서만 기술되었던 대인관계 패턴의 내용을 자기보고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결과와 CCRT

방법의 결과를 사례별로 비교한 결과, 사례들 중 핵심 구성요소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45개 구성요소 중 18개(40%)였으나, 상위 3개의 구성요소들을 비교했을 때에는 43개의 구성요소가 일치하여 96%의 일치도를 보였다.

둘째, 평정자가 평정한 핵심 소망, 타인반응, 자기반응이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상위 3개 소망, 타인반응, 자기반응들에 포함되는 경우는 전체 45개 구성요소 중 소망이 12개, 타인반응이 10개 그리고 자기반응이 14개를 나타내었다.

셋째, 전체 사례를 통하여 핵심 구성요소와 나머지 구성요소들의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하위범주 평균을 대응표본 *t* 검증한 결과, 평정자가 보고한 핵심 소망과 핵심 자기반응은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상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넷째, 개인차를 고려하여 사례별로 핵심 구성요소의 평균과 다른 구성요소들의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하위범주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핵심 소망은 13사례에서 그리고 핵심 타인반응과 핵심 자기반응은 각각 11사례에서 핵심 구성요소의 평균이 다른 구성요소들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개별 사례 분석 결과 사례 1, 3, 6, 13에서 내담자는 타인반응을 긍정적으로 보고한데 비해 평정자는 타인반응을 부정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성향이 영향을 주었거나, 상담이라는 배경 상 내담자가 부정적인 관계만을 집중적으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소망이나 자기반응에 비해 타당도가 다소 떨어지는 타인반응에서 분명하게 대비되는 내용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이 질문지의 타당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사례 6과 사례 13에서 상위 3개의 타인반응 내용이 모두 불일치했던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의 결과들은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가 CCRT 방법에서 얻어지는 핵심 갈등관계 주제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내담자의 자기보고에서 갈등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CCRT 평정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에서 평정자가 평정한 핵심 구성요소가 내담자가 보고한 상위 3개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경우는 80% 정도였는데, 이는 CCRT 평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에서도 얻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이렇게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가 내용적으로 타당함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활용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가 실용화 된다면 CCRT가 지녔던 비용과 시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고 대인관계 패턴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연구 또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활용도가

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사례 개념화를 위한 간편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내담자의 상담 자료를 토대로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를 타당화 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문항이 번안된 CCRT 표준범주와 핵심 관계 질문지의 문항에 근거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내담자의 생생한 상담 자료가 비교의 근거가 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를 보완 수정한다면, 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가 개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 방법에 사용된 CCRT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축어록의 CCRT 평정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판 CCRT 표준범주를 번안한 표준범주들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는데 특히 소망에 비해 타인반응, 자기반응의 범주목록이 제한적이었다. 미국판 CCRT 표준범주가 여러 연구를 거친 것이라고 하나 그 기준이 미국 내담자를 근거로 한 것이고 연구 또한 미국 내담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한국 내담자의 상담자료를 근거로 한 한국판 CCRT 표준범주의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주로 표준범주만을 비교해 핵심 갈등관계 주제를 파악한데 비해 본 연구는 맞춤(tailor-made) 방식을 이용해 내담자의 개인적 자료를 최대한 살렸다는 점에서 한국판 CCRT 표준범주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는데 첫째,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하여 도구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며 더불어 하위범

주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와 CCRT 방법의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CCRT 표준범주를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하위범주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하위범주와 CCRT 표준범주가 같은 내용을 다른 범주로 묶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두 도구의 토대가 된 모집단의 문화적 차이나 범주명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내용 비교와 통계적 검증 결과 모두 타인반응에 대한 CCRT 방법과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소량, 자기반응에 비해 높았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가 핵심 갈등관계 주제의 소량과 자기반응은 잘 반영하고 있으나 타인반응의 내용은 덜 반영될 수 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타인반응과 관련된 문항이나 하위범주의 보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CCRT 방법에 사용된 표준범주의 한계이다. 축어록 평정시 사용된 CCRT 표준범주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기준을 번안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상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실제 평정을 하면서 맞춤 방법에서 얻었던 개인 자료가 많이 손실되는 경험을 하였는데 CCRT 연구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표준범주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적은 사례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내용적으로 타당화 했다는 점이다. CCRT 방법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사례를 평정하기 어려워, 적은 사례를 가지고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를 타당화 했으므로 앞으로 다른 타당화 연구를 통해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은

사례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질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가 핵심 갈등관계 주제의 내용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를 안정화 시킨다면 그 유용성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CCRT 방법과 관련된 후속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대인관계 패턴 측정도구의 개발과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본 연구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 윤지희 (2003).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개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nchin, S. M., & Kiesler, D. J. (1982)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therapy*. New York: pergamon.
- Barber, J. P., & Crits-Christoph, P. (1993). Advances in measures of psychodynamic Formul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574-585.
- Barber, J. P., Foltz C., & Weinryb, R. M. (1998). The central relationship questionnaire: Initial re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31-142.
- Brenner, C. (1982). *The mind in conflic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Crits-Christoph, P., & Luborsky, L. (1998). The perspective of patients versus that of

- clinicians in the assessment of central relationship themes. In L. Luborsky & P. Crits-Christoph (Eds.),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pp221-231). New York: Basic Books.
- Davanloo, H. (1980). *Short-term dynamic psychiatry*. New York: Jason Aronson.
- Freud, S.(1912, 1966). The dynamics of transference, In J., Strachey(e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vol. 12)*, London: Hogarth press.
- Haley, J. (1963). *Strategies of psychotherapy*. Orlando, FL: Grune & Stratton.
- Horowitz, M. J. (1991). *Person schemas and maladaptive interpersonal patter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esler, D. (1982). Interpersonal theory for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In J. C. Anchin & D. J. Kiesler(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therapy*. New York: Pergamon.
- Luborsky, L. (1984). *Principles of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A manual for supportive-expressive treatment*. New York: Basic Books.
- Luborsky, L. (1998). Alternative measures of the central relationship pattern. In L. Luborsky & P. Crits-Christoph (Eds.),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pp289-303). New York: Basic Books.
- Luborsky, L., Barber, J. P., & Crits-Christoph, P. (1990). Theory-based research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281-287.
- Luborsky, L., & Crits-Christoph, P. (1998).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Luborsky, L., Crits-Christoph, P., & Mellon, J. (1986). The advent of objective measures of the transference concep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39-47.
- Malan, D. M. (1976a). *The frontier of brief psychotherapy*. New York: Plenum Press.
- Malan, D. M. (1976b). *Toward the validation of dynamic psychotherapy*. New York: Plenum Press.
- Singer, J., & Salovey, P. (1991). Organized knowledge structures and personality, In Horowitz, *Person Schemas and maladaptive Interpersonal Patter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rong, S. R., & Claiborn, C. D. (1982). *Change through interaction: Social Psychology Proces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 Wiley
- Strupp, H. S., & Binder, J. L. (1984). *Psychotherapy in a new key; A guide to time-limited dynamic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Walrond-Skinner, S. (1986). *A dictionary of psychotherapy*.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원 고 접 수 일 : 2005. 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9. 15

게 재 결 정 일 : 2006. 11. 15

Validation Stud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 Questionnaire through CCRT Method

Soo-Jin Park

Nam-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is for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 Questionnaire (IRPQ), a self-report measure, using the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CCRT) method. Among 65 clients who completed the IRPQ, 15 clients showing various relationship pattern categories were selected and their transcripts were judged through the CCRT method. The result of the CCRT method was compared with the result of the same client's IRPQ to identify the similarity. As a result, the main W(wish), RO(response from others) and RS(response of self) of the CCRT method accorded with the IRPQ components. It means that the IRPQ has some reasonable concurrent validity.

Key word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CCRT) metho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 Questionnaire(IRPQ), validity*

부록.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하위범주를 기준으로 재분류된 CCRT 표준범주 2판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하위범주	CCRT 표준범주 2판의 재분류
소망	
돕고 싶음	12)상대방을 돕고 싶다 31)편안함을 느끼고 싶다
반대하고 싶음	10)거리 두고 싶다 14)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16)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 18)상대방에게 대항하고 싶다 19)상대방을 휘어잡고 싶다
독립적이고 싶음	21)자제력을 갖고 싶다 23)독립적이고 싶다 28)나만의 색깔을 갖고 싶다 29)책임을 안 느끼고 싶다 34)내 주장을 하고 싶다
성취하고 싶음	24)내 자신을 좋게 느끼고 싶다 22)달성하고 싶다 25)개선하고 싶다 26)완벽하고 싶다
믿고 잘 지내고 싶음	5)상대방을 존중 6)신뢰감을 갖고 싶다 9)마음 터놓고 싶다 11)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다 17)갈등을 피하고 싶다
보호받고 의지하고 싶음	13)도움받고 싶다 15)(상대방에게) 혼나고 싶다 19)상대방이 나를 이끌어 주었으면 싶다 27)상대방처럼 되고 싶다 29)책임을 안느끼고 싶다
사랑받고 싶음	1)이해받고 싶다 2)수용되고 싶다 3)존중받고 싶다 7)(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주었으면 싶다 8)상대방이 쉽게 다가오기를 원한다 30)안정감을 가지고 싶다 33)로맨틱한 사랑을 받고 싶다
타인반응	
신뢰할 수 없음	6)존중하지 않는다 7)신뢰하지 않는다 8)나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 14)도움이 되지 않는다 25)상대방은 나쁘다
사랑하고 도움을 줌	1)나를 이해한다 3)나를 수용한다 5)존중한다 9)나를 좋아한다 11)나에게 스스럼없이 대한다 13)나에게 도움이 된다 21)나에게 자원을 준다 30)나를 사랑한다
독립적임	23)독립적이다 24)강하다 29)즐겁다
통제함	19)안정감 없다 20)나를 통제한다 26)나에게 엄하게한다
나에게 순종함	18)나에게 협조적이다 22)의존적이다
거부함	4)거부한다 10)좋아하지 않는다 12)멀리한다
상처받음	2)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16)상처를 받는다 27)화낸다 28)불안하다
공격적임	15)나에게 상처를 준다
자기반응	
혼란스러움	13)혼돈스럽다 19)불확실하다 20) 실망스럽다 21)화가 난다 27)불안함을 느낀다
사랑받음	1)상대방을 이해한다 3)내가 수용받는다고 느낀다 4)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5)상대방을 좋아한다 7)상대방에게 마음을 연다 9)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 28)나는 편안함이 느껴진다 29)즐거움이 느껴진다 30)사랑받는다고 느낀다
자신감	14)자제력을 가진다 15)독립적이다 18)자신감이 느껴진다
통제함	2)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 6)상대방을 좋아하지 않는다 8)마음을 열지 않는다 10)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 11)상대방에게 대항한다 12)통제한다
무력감/우울	17)무기력하다 22)우울해진다 25)죄책감을 느낀다 26)부끄럽다
통제되고 사랑받지 못함	16)의존적이다 23)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